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 성공 위해 한전 참여 필요

8.2GW 규모 단일 단지 세계 최대 12만개 일자리 창출 대형 프로젝트 기술력·자본 갖춘 공기업 참여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전남을 방문,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며 기대감을 보였던 48조 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한전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8.2GW 규모로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며 이를 통해 직접 일자리 5600개,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12만개의 일자

리가 창출되는 등 전남의 미래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런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한전과 같은 기술력과 자본을 갖춘 공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 개발 비용과 기술력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사업 기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송변전설비 등이 필수적인데 한전은 석선버섯, 터빈 일괄설치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운영 노하우도 풍부하다. 중국 내풍과 지역에 GW급 단지를 건설·운영한 경험도 갖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한전, 민간간 협업을 통한 공급망 국산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한전이 1.5GW 규모 신안해상풍력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SPC(특수목적법인)보다 개발 비용에서 1조8000억 원(금융비용 1조1000억 원, 법인세 7000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의 선진국들도 해상풍력 등 규모가 큰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한전과 같은 대표 유틸리티 기업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 국영기업 오스테드가 대표적이며, 독일 인노지(Innogy)와 스웨덴 바텐폴(Vattenfall), 스페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안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한전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해 7월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전이 발전 사업에 진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전력 계통망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기류가 국회 산자위 내부적으로 강하게 때문이다. 여기에 한전이 국내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규모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전이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조건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에만 국한

하는 등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한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까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코로나 백신 접종시설·인력 준비 속도

하루 9700명 접종 예상

광주시가 호남권역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시설·인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일 광주시 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 자치구별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등 3가지 유형별 시설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조선대 해오름관에 설치됐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 천안 순천향대병원(중부권), 양산 부산대병원(영남권)과 함께 권역 센터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이달 말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의 지역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진 4000명이 대상이다. 가장 많은 시민이 집중하게 될 자치구별 예방접종센터는 동구 문화센터,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남구 다목적체육관, 북구 전남대 스포츠센터, 광산구

보훈병원 재활체육관에 마련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다. 위탁 의료기관은 479곳이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상 반응을 파악하는 공간 확보 등 여건을 검토해 미비한 곳은 제외할 예정이다. 광주 인구 145만명을 기준으로 집단 면역에 필요한 70% 접종 인원은 101만 5000명이다. 18세 이상 인구의 60% 정도인 72만 5000명이 초저온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는 가정하에 단순 추산해 하루 9천700명가량이 접종하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의사 67명, 간호사 134명, 행정 인력 166명 등으로 16개 팀을 꾸리기로 하고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해철 행안부 장관,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 조선타병원 방문 "시민들 안심 접종할 수 있게 최선 다해달라"



9일 광주를 찾은 전해철(앞줄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코로나 19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백신 접종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인 조선대병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제품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현장점검에 앞서 광주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및 호남권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백신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전 장관은 이어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진·접종·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 예방접종 시행 과정을 살펴보고 의료인력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2월 말~3월 말 일시 지급

전남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2월말부터 3월말까지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4월과 10월 각각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상황을 긴급점검했으며, 확보량이 부족한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한 확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수당을 희망한 농어민은 10일까지 종합소득금에 증명원과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마을 이·통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시·군공익수당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26일부터 지역화폐가 준비된 시·군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온라인 신청·읍면동주민센터 접수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촉진과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 마련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의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도내 22개 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10일부터 담양농협, (유)자연과농부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에서 권역별로 첫 공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현재 임신중이거나 산정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각 시·군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비용의 2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1년간 최대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지난해 수혜자, 중도 포기자는 제외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소포물(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품목은 총 100여 가지로 도내 생산된 친환경 쌀을 비롯 과일, 신선채소, 무항생제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유기농공식품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지난날 접수를 시작한 이후 여수, 광양, 무안 등 지역에서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업량 120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까지 3300여명의 임산부가 사업을 신청했으며 각 시·군에선 사업량 소진 시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도내 전 지역 임산부에게 건강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 하실분 3억 이상

**경매 낙찰된 특수물건
급매 / 부도직전 물건
경기 / 수도권 물건
수익률 좋음**

(주)오천.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윤동(550904-XXXXXX)
• 최후주소 :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483

피상속인 망 이윤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순천지원 2021년2월24호로 신청하여 2021년 1월 2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시에 제외됩니다.

2021년 2월 10일

• 상속인 : 이한설(650825-XXXXXX)
순천시 왕지5길 9-26, 202동 903호 (왕지동, 두산위브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2. 10. ~ 2021. 4. 21.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이한설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대일전력(이하"갑")과 주식회사 세명전력(이하"을")은 2021년 02월 09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에 공고함.

2021년 02월 10일

• 갑 주식회사 대일전력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산로 10
대표이사 황은주

• 을 주식회사 세명전력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204, 가동 3층(양동)
대표이사 민영웅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동명건설 주식회사(이하"갑")와 다온전력 주식회사(이하"을")가 2021년 02월 08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갑) 동명건설 주식회사 전기공사업(광주-00881)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과(을) 다온전력 주식회사와 합병하고(갑)과(을)은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2월 10일

1. 망도대상 : 전기공사업(광주-00881)
2. (갑) 상 호 : 동명건설 주식회사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하매로 13, 2층
대표이사 : 김 우 제
전 화 : 062-575-6525

3. (을) 상 호 : 다온전력 주식회사
주 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50
대표이사 : 엄 성 민
전 화 : 062-513-1601

산행안내

2월 21일(일)
▲광주KJ산악회 2월 21일(일)
경북 군위면, 아미산&방가산 산행, 영주체육관 06:30, 동아병원앞 06:35, 롯데백화점 06:40, 광주역 06:45, 문예후문 06:55, 비엔주차장 07:00 ※ 다 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복지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분화예술큐거진
이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

69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